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 믿음, 일치를 향한 모험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제3주 주일 】

인도 : 김재홍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경배의 찬송 .....	14. 주 우리 하나님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봄을 맞아 곳곳에 환하게  
 꽃은 피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은 어둠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불안과 답  
 답함이 엄습합니다.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둠  
 의 기운에 짓눌려 지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조심해야 할 것을 조심하되 하루  
 하루 의연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전 세계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자칫 혐오와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바이러스의 유입은 차단해야 하지만 근  
 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해야 함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서로의 어려움  
 을 살피고 도우며 이 난국을 이겨 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위로의 말씀 .....	사 49:13b~15 .....	인도자
교 독 문 .....	126. 사순절(3) .....	다 함께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찬 양 .....	86. 내가 늘 의지하는 .....	다 함께
성경봉독 .....	레25:35-38 .....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 독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 계

연 주 .....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	홍지희
-----------	---------------------	-----

말 씀 .....	결부축하는 사람들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 함께
찬 양 .....	517. 가난한 자 돌봐주며 .....	다 함께
공동체 소식 .....		김기석 목사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졌을 때 다가와 일으켜 주셨고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를 보며 손익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힘껏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요 거룩하게 사는 길입니다.

다 함께 : 아멘.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다가와 설 땅이 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려운 이웃의 벗이 되겠습니다.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며 살겠습니다. 혼자 길을 가기보다는 쓰러진 이를 일으켜 세워 함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기석 목사


다음주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홍

헌금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 백성래 백강우    감사헌금 : 이유일 김미희 백성래 무명1  
 생일감사헌금 : 윤수진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

## 교회소식

---

1. 예배 안내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 헌금 안내 : 십일조·월정·감사헌금은 새마을금고 0304-09-000598-1 (예금주 : 청파교회)로, 코로나19 재해구호헌금은 새마을금고 9002-1689-6414-8 (예금주 : 청파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신앙실천 : 마스크를 여유롭게 가지고 계신 분은 교회로 보내 주십시오. 어려운 이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봄날

이문재

대학 본관 앞

부아양 좌회전하던 철가방이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저런 오토바이가 넘어질 뻔했다

청년은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막 병글기 시작한 목련꽃을 찍는다

아예 오토바이에서 내린다

아래에서 찰칵 옆에서 찰칵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 찰칵 찰칵

백목련 사진을 급히 배달할 데가 있을 것이다

부아양 철가방이 정문 쪽으로 튀어 나간다

계란탕처럼 순한

봄날 이른 저녁이다